

1990년대 중국조선족 시문학 비평의 쟁점들*

- 『문학과 예술』, 『장백산』을 중심으로

장은영
(조선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의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였던 1990년대 중국조선족 문학의 쟁점들을 시문학 비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조선족문학이 기존의 문예 이론이나 문학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존립의 방향과 정체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문학과 예술』, 『장백산』에 실린 비평들을 통해 이 시기 조선족문학의 상황과 시대적 문제의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방향성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해보았다.

사회 문화적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족 비평가들은 비평의 위기와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창작 방법을 추구했던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변화하는 현실과 그것을 반영한 작품들을 보면서 평단은 비평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식과 이론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움직임은 사회주의 문예이론을 완전히 탈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평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론의 섭수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비평 이론에 대한 갈망과 요구는 시문학 비평에서 현대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비평가들은 문예지를 통해 서구의 문예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이데올로기적 추세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조선족문학이 추구해야 하는 현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방향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2014)

을 모색했다. 조선족문학의 현대성 논의는 조선족의 문화적 전통 및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정체성 형상화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선족 비평은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세계 문학과의 교류와 소통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평가들은 세계 문학과 공감할 수 있는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조선족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남영전의 토론편지는 그러한 노력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조선족 비평은 조선족문학만이 아니라 조선족 사회의 위기 앞에서 균열과 해체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조선족 비평의 움직임은 중국이나 북한, 한국과 차별화되는 한글문학의 한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조선족문학, 1990년대 비평, 문학과 예술, 장백산, 민족문화정체성

1. 서론

중국의 개혁개방은 조선족 사회가 전통적 농업사회를 탈피해 세계화의 감각을 경험했던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농촌공동체의 와해가 초래된 사건이었다.¹⁾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조선족 사회로 하여금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했고, 조선족문학에도 새로운 과제를 요청하였다. 시대적 변화가 가져온 조선족 사회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와 더불어 조선족문학의 발전적 지속을 위해 새로운 문학적 가치와 방법론을 탐색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시대적 전환기에 처한 조선족문학은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질적 변화를 맞이했다. 따라서 조선족문학의 현재적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조선족 문단의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해하는 것이 조선족문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요청된다.²⁾ 본 논의는 개혁개방 후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

1) 김관웅, 김정은, 「개혁개방 이후 다문화시대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국어교육연구』 제26집, 2010, 25-26쪽 참조.

2) 최병우는 중국조선족 소설문학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조선족 문학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는 중국조선족 문학에 대한 자료 정리, 둘째는

중국조선족 시문학 비평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동시대 조선족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학과 조선족문학 교류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혁개방 정책은 조선족문단과 한국문단의 만남을 가능하게 했고, 한글 창작을 공통분모로 하는 두 문학권의 만남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상호간의 문학 교류는 창작물의 교류를 넘어 문학 연구로 심화, 확대되어 왔다. 다른 지역 제외 동포 문학에 비해 조선족문학과 한국문학의 교류와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리적 근접성이나 문화적 유사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조선족이 한글을 모국어로 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다.³⁾

그런데 조선족문학이 한글 텍스트라는 점은 자칫 조선족문학이 지닌 특수성을 간과하고 한국문학의 부분으로 환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선족문학에 대한 한국문학의 관심과 열의는 상호 문학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문학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조선족문학을 재단할 우려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중 수교 이후 한국문학과 조선족문학 교류 초기 단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서 우리의 작품을 들여다보는데서 대체적으로 그 주류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지만 일부 문제들도 있다는

중국의 현대사와 관련하여 중국조선족 문학을 새롭게 읽는 것, 셋째는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문학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넷째는 한중 수교가 중국조선족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 다섯째는 중국조선족 문학에 대한 미학적 연구, 여섯째는 남북한 문학 나아가 재외한인 문학과와의 비교 연구가 그것이다.(최병우,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2007, 14-16쪽.)

- 3) 1990년대 초반 조선족 농촌 인구의 96%, 도시 인구의 74%가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조선족의 한글 사용은 한글 문학 창작이 유지되는 근본적 조건이다.(강순화, 「선택조사에서 본 연변조선족의 조한어중언어 사용현황」, 『중국조선어문』, 1992, 6. 강보유, 「중국 조선족의 모국어 생활과 모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9, 3쪽에서 재인용.)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리념과 체제의 편견에 너무 매달리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중국조선족 삶의 현장을 떠나 제멋대로 풀이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중국에 한번도 와보지 않고 혹은 말타고 꽃구경 하는 식으로 와서는 척척 2천매 3천매의 대작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철저히 하나도 남김없이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격이 있고 리성이 있고 량심이 있는 현대 지성인으로서의 과학적인 학풍, 고상한 문풍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히 힘쓰자는 것을 힘주어 내세우고 싶습니다.⁴⁾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된 문제는 여전히 한국 연구자들이 직면한 연구의 한계인 것은 사실이다. 제한된 자료를 통해 조선족 사회의 문화와 역사적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조선족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토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선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평등한 시각에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만약 조선족문학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서구의 문학 이론이나 사상 등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앞서 있다는 관점에서 조선족문학을 바라본다면 자칫 계몽적 시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문학 교류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학술 논문과 같은 연구물로 결과가 제출된 후에는 그 자체로 객관성과 과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문학 연구는 한국과 조선족 연구자들의 긴밀한 관계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족문학 연구가 한국과 중국 조선족 양 사회에서 학술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고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논의가 한중 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 비평의 쟁점들을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재외동포 문학이 간직한 이산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호간의 교류와 소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시대 문학에 대한 수용과 공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본 논의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의 비평에

4) 최삼룡, 「중국조선족문학과 한국문학의 만남」, 『문학과 예술』 80호, 1993, 7쪽. (밑줄은 인용자)

나타난 문학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조선족문학의 평론분야를 대표하는 문예지 『문학과 예술』⁵⁾과 조선족 사회의 현안을 보여주는데 충실한 종합문예지 『장백산』⁶⁾을 대상으로 삼았다. 두 잡지 매체에서 나타나는 조선족문학 비평의 쟁점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문학의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II. 문학 환경의 변화와 1990년대 비평의 성과 및 한계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추진되어 온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업, 상품, 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주변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제화 차원에서 개방을 확대했다.⁷⁾ 이와 같은 체제 변화는 중국조선족의 삶의 환경만이 아니라 문단의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먼저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단의 존립 문제를

-
- 5) 『문학과 예술』은 중국조선족 문학평론의 발전과 번영의 보루로 여겨지는 격월간 문예지이다. 1979년에 설립된 연변문학예술연구소 기관지로 1980년 창간부터 1984년 11월까지의 『문학예술연구』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전성호, 「중국조선족당대문학평론개관」, 『문학과 예술』 89호, 1995, 19쪽.) 2008년에는 『e 문화시대』로 개명하였고 종합성 문화 간행물로 바뀌었다.(장춘즈, 「신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현상과 전망」, 『인문과학』 제53집, 2014. 2, 95쪽.)
- 6) 『장백산』은 『연변문학』, 『도라지』, 『송화강』과 더불어 대표적인 중국조선족 문학 종합 간행물이다.(장춘즈, 앞의 글, 98쪽) 『장백산』은 1980년 5월 한글로 창간호를 발행한 격월간 문학지로 문학 작품만이 아니라 조선족 사회 현안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다루는 종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충격화제’라는 이름으로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에 등장한 사회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당시 조선족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는 안병삼의 논문 「『장백산』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 사회와 비판의식」(『한민족문화』 제32호, 2008. 10.)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또 『장백산』에 실린 시문학에 대한 국내 발표 논문으로는 권혁률의 「새 세기 중국 조선족 시단의 풍경」(『한국문학평론』, 2006.)과 장은영의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도시 서정」(『한중인문학연구』 제46집, 2015.) 등이 있다.
- 7) 외교통상부, 『중국 개황』 31,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과, 2012, 194-195쪽.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출판업계의 상황 변화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조선족 출판업계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고 한글 출판은 급격히 감소했다. 고신일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에 최대 8천5백부까지 출판되던 소설이 1990년대 중반에는 최대 1천여 부에서 보통은 4~5백 부 출판되는 데에 그쳤다.⁸⁾ 출판 시장의 규모가 급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출판사 경영 환경의 변화와 한글 독자의 감소를 주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일로에서 한문 출판사의 경우 자립 경영으로 전환한 데 비해 한글로 간행되는 신문, 잡지를 비롯한 조선족 출판사는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정부 지원금과 현실적 물가상승의 격차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폐간 위기를 겪게 되었다. 출판 경영의 위기가 조선어 출판물의 폐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1990년대 조선족문학의 환경이었다.⁹⁾

또 한편으로는 세대가 전환하면서 점차 한글 독자가 감소하고 한문 독자가 늘어가는 추세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조선족 출판사들이 한문도서 출판으로 얻은 이윤으로 한글 출판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한글 출판물 독자는 감소했는데, 한글 출판의 감소는 곧 조선족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제 분야의 발전에 직접적 영향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¹⁰⁾

한글 출판의 위기는 한글 사용의 축소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하는 징후로 여겨지기도 했다. 실제로 1990년대 모국어 사용 현황을 보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조선족 인구가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대한 한글 교육이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난다.¹¹⁾ 이는 조선족 사회에서 점차 한글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한글 사용자의 감소도 문제지만 계층에 따른 언어의 이원화도 조선족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가 점차 한글보다

8) 고신일, 「중국조선족문학과 연변문학(하)」, 『북한』 5, 1995, 194쪽.

9) 고신일, 앞의 글, p.195, 류연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문출판」, 『문학과 예술』 88호, 1995, 53쪽.

10) 류연산, 앞의 글, 54쪽.

11) 강보유, 앞의 글 참조.

한어 사용으로 돌아서는 것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노후 세대는 한어 사용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조선족 사회 내에서 언어적 단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어의 이원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지식인층과 노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농촌 사회를 계층적으로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족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화적 유대와 소속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 인용문은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에서 열렸던 심포지움에서 제기되었던 발언으로 한글 문학의 위축과 조선족 사회 해체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변은 조선족자치주인데 민족비례가 역전되고 있다. 특히 우리 말과 글이 점차 자기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 상업화의 발전으로 적지 않은 농촌집거구가 해체되고 학교도 없어지고 있다. 많은 연변의 인구가 밖으로 나가게 된다. 장사를 위해 나가고 학교에 입학하여 나간다.¹²⁾

한글 출판의 위기는 조선족문학만이 아니라 조선족 사회 전체의 변화와 위기를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당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 추세를 보더라도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인구는 한족 인구가 27.8만 명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조선족 인구는 8.6만 명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¹³⁾ 조선족 인구의 감소는 학령 아동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조선족학교를 통한 민족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시장경제 도입 이후 사회활동이나 신분상승을 위해 조선족학교보다 한족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관찰된 바 있다.¹⁴⁾ 이런 현상 때문에 한글 출판의 불경기가 조선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는 촉매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¹⁵⁾ 한글 출판 위기와 한글 위축 상황에서 작가들의 창작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작가들이 창작을 전업으로 하지 못하고 직장에

12) 「중국조선족문학의 현황과 전망」, 『문학과 예술』 4호, 1994, 9쪽. (저자는 『문학과 예술』 본지 기자로 되어 있음.)

13) 김두섭, 류정균, 「연변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 1990년, 2000년 및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2013, 125쪽.

14) 위의 글, 136-137쪽.

15) 류연산, 앞의 글, 54쪽.

다니며 여유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보니 창작의 양과 질에 있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 문제였다.¹⁶⁾

그러나 한편으론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과 한글 출판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문학은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이론에 충실했던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문학 작품들을 양산하며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임범송에 따르면 1990년대 비평의 성과로 지적할 만한 것은 이전 시대에 비해 “평론의 위치, 자세, 가치, 기능이 보다 명확해졌고” 연변문학예술연구소 기관지인 『문학과 예술』을 통해 무게 있는 평론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평론가의 예술 수양도 강화”되었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젊은 평론가들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¹⁷⁾

한국 연구자들인 정덕준, 이상갑은 중국조선족 비평의 사적 흐름을 개관한 글에서 1990년대 이후 장춘식, 김성호 등 신세대 비평가들이 등장하여 비평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이 현장 비평에서 적용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계급성보다 인간성을 중시하고 사상적 해방을 추구하는 신사실주의적 태도와 생명과 모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성문학의 확장을 1990년대 비평문학의 주요 논점으로 제시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이론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문학 작품에 주목하고 그것을 문학적 주제로 삼는 태도는 이전 시기를 탈피하고 새로운 문학을 모색하는 1990년대 중국 조선족문학 비평의 한 성과라 하겠다.¹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하면서 조선족문학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변화를 겪은 중요한 시기였다. 문학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변화하였고, 때마침 타결된 한중 수교는 북한을 한글 문학의 모델로 삼고 있던 조선족문학이 사회주의 문학을 벗어나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문학을 섭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¹⁹⁾ 이미 1980년에

16) 고신일, 앞의 글, 195쪽.

17) 임범송, 「시장경제와 90년대」, 『문학과 예술』 88호, 1995, 4쪽.

18) 정덕준, 이상갑, 「재중 조선족 문학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13, 2003, p.317, 343-347쪽.

19) 중국 건립 이후 조선족 문학은 한국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북한문학을 모국문학으로 수용해왔고,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문학은 조선족 문학에 절대

한국 문학 작품과 한국에서 출판된 세계문학전집을 접한 기회가 있었던 조선족 평론가 최삼룡은 한국문학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이 문학은 기실 문학이라기보다 배달겨레의 절반이었으며 조선반도의 절반이었으며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한 고국의 절반 모습”²⁰⁾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그 동안 외부 세계의 문학과 소통하지 못했던 조선족문학이 한국문학이나 다른 세계의 문학과 만나면서 얻은 자극 또한 조선족문학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좀 더 실증적인 문학적 고민과 모색의 과정에 접근해보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시문학 비평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위기의 극복과 정체성 모색을 위한 비평 담론의 양상

1990년대 조선족 비평은 시나 소설에 비해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시나 소설 등 작품을 발표할 원지는 그런대로 보장을 받고 있으나 평론이나 논문을 발표할 지면은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응당 출판되어야 할 많은 평론집, 연구논문집, 문집들은 원고가 적체된”²¹⁾ 상황에서 조선족 비평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따라서 이 당시 비평은 특정한 문학적 경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현실 변화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조선족문학의 대응과 전망이 비평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비평계의 화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체제가 야기한 비평 정신의 위기와 극복이고, 둘째

적인 영향을 끼쳤다. 북한문학의 영향은 한중 수교 이후 완전히 소실되었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 후 조선족 문학은 한국문학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강옥, 「한중수교와 중국 조선족 문학」, 『비평문학』 제36호, 2010, 8쪽.)

20) 최삼룡은 동시대의 세계문학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학은 인류의 영혼을 쪼먹는 독약이라고 생각했었으나 실제 작품 탐독 후에는 인생과 자아와 문학에 대한 관념을 재정리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최삼룡, 앞의 글, 5쪽.)

21) 전성호, 『중국조선족 문학 예술사 연구』, 이희출판사, 1997, 59쪽.

는 민족 정체성의 확립과 그 실천 방안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족 비평계가 보여주었던 위기 극복과 정체성 모색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하자.

1. 비평의 위기와 극복: 지식의 수용과 현대성 모색

자본주의적 시장체제가 확산되면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도약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가치의 혼란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가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임범송은 “시장경제하에서 문예산품의 상품성과 그것의 특수성, 문예작품의 가치(사상예술가치 혹은 심미가치)와 상품가치(시장에서의 교환가치)의 규정성 및 그들의 정확한 관계, 문예작품의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효익의 함의 및 량자의 관계, 문화시장과 문예창작 및 문예평론의 관계 등 이론문제와 실천문제들이 정확하게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 체제는 문학마저도 상품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문학의 상품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문학의 상품성은 “문학의 사회성, 시대성, 정치성의 빈약”으로 이어졌고 “먹고 마시고 섹스하는 것을 전부의 내용으로 삼”²²⁾는 작품들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렇게 탄생한 통속 문학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문학적 가치가 다원화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대상을 상품으로 환원하고 화폐로 그 가치를 나타내는 자본주의적 생리에 빠르게 적응한 문학의 기형적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삶의 가치 체제가 전환되고 기존의 가치들이 와해되는 과도기적 현실에서 비평은 확고한 가치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목소리가 약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의 평론사업이 창작의 뒤통무니를 따르면서 긍정도 명확한 긍정이 없거나와 그릇된 경향도 제대로 지적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릇된 경향에 박수를 보내는 사이비한 평론도 있다. 시대는 발전하고 문학도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의 평론이 아직도 횡적으로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종적으로 심도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막벌이식이고 피상적인 평론이 수

22) 리상각, 「창작과 평론에 대한 단상」, 『문학과 예술』 89호, 1995, 28쪽.

두룩하며 무게있고 깊이가 있는 이론적 탐구가 보이지 않는데서 오히려 창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²³⁾

리상각의 비판에는 다양한 문학 이론을 섭수해가는 과도기적 현실과 시장 경제체제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비평이 문학 창작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학 비평이 가치의 공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또 가치의 공백은 그동안 조선족문학의 토대가 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문학관과 자본화되는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의 공백 상태에서 비평가들은 두 가지 입장과 태도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예이론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이론을 섭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자의 견해를 보여주는 임범송은 평론가의 주체적 각성을 통해 시급히 현실의 가치 공백을 극복해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평론사상의 곤혹은 오직 평론가들의 진실보로 되는 정신적해방에 의해 해결된다. 시장경제와 문예사업, 물질생활과 정신생활, 문예사업의 숭고성과 사명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평론가들의 정신적해방을 가져올수 있다. 이렇게 되면 평론계에 존재하는 소극적인 정서, 기대심리, 열정위기, ‘하해’ 바람 등을 해결할 수 있고 문예평론가들의 적극성을 발휘하여 평론의 새 국면을 개척할 수 있다.²⁴⁾

임범송은 시장경제체제라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예 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면 정신적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적 해방이란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문예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위의 글에서 임범송은 등소평과 엥겔스를 인용하면서 정신적 문명건설을 위해 문학 작품은 사회적 이익을 최고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과 미학적이며 역사적 관점에 따라 실사구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문학론을 문학의 올바른 방향으로 전제하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태도는 개

23) 위의 글, 30쪽.

24) 임범송, 앞의 글, 5쪽.

인화되고 물질화된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엄정히 비판하고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비평 정신의 위기가 단순히 자본주의체제의 폐해에서 온다는 분석은 현실을 단순화한 진단이다. 또 문학 정신의 토양이 사회적 사명감이나 책임감에서만 오는 것이라는 생각 역시 문학의 자율성을 간과한 견해이다. 임범송이 제기하는 비평가의 정신적 해방은 현실을 단순히 이해하고 문학 정신의 본질을 사회적 차원으로 호도하는 데 그쳐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달리 비평 정신의 위기를 해소하고 비평 이론의 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방안으로 제기된 것은 새로운 이론의 수용이다. 이론의 수용은 다원화된 가치 지향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예이론의 한계에 대한 자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평 이론의 수용은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던 문제인데, 조선족문학의 대표적 연구자인 조성일은 지식구조의 경직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평계의 문제로 지적하며 지식과 이론의 수용을 적극 주장했다.

70년대까지 우리는 20세기 세계의 과학, 사상, 문화와 단절된 척박한 문화적 풍토 속에서 살아왔기에 ‘현대문맹’을 면하지 못하였다. 문화혁명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18세기말까지의 세계문학에 한해서는 알고 있지만 20세기의 세계문학리론, 문학사조,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무엇이 상징주의이고 무엇이 표현주의이고 무엇이 구조주의이고 무엇이 신비평이고 무엇이 프로이트이고 무엇이 싸르트르이고 하는 것을 하나도 몰랐다. 그러다가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지식구조가 너무나 경직되고 사유공간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지식구조의 경직화, 사유공간의 협소화는 우리 평론가들의 문학평론 수준을 높이는 데서 큰 장애로 되고 있다.²⁵⁾

조성일이 제기한 평론의 문제점은 지식구조의 경직화 외에도 평론방법의 획일화, 평론대오의 분화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25) 조성일, 「중국조선족 당대문학평론에 대한 단상」, 『문학과 예술』 89호, 1995, 26쪽.

평론의 방향은 지식의 자기화를 통한 수준의 제고와 세계적인 문화교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1990년대 조선족 비평의 과제는 무엇보다 새로운 이론의 수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사회주의 문예이론과 사회 문화적 개방에 따른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드러내는 괴리감에 대한 자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나아가 변화하는 문학과 사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의 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팽만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주목할 것은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은 조선족문학의 서구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복잡다단해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이론의 수용은 실제 서구 문예 이론을 비평에 적용하는 문제이지만 이것이 서구적 가치의 무분별한 수용이나 낭만적 선진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족문학의 절실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대안인 만큼 이론의 수용은 조선족문학의 자구책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론의 흡수를 통해 세계적 감각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세계적 감각을 획득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대’라는 말로 압축되는 탈근대적 시대에 대한 이해였다.

현대는 흔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후기 산업사회나 정보사회로 일컬어진다. 최근에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더불어 랭전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탈이데올로기의 풍조 속에서 다원주의와 해체주의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이 여러 예술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 정신사적 흐름이 이성주의의 무거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끊임없는 일탈을 시도한다 해도 일단은 과학적세계관이라고 집약되는 태도아래서 인간의 초월적, 도덕적, 심미적 가치계 수세에 몰린 것은 사실이다. 가치중심의 태도에서 사실적태도에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과학적 태도가 상승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에 의한 산업화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조직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생활과 생각과 느낌의 새 적응을 초래했다. (중략) 후기산업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은 존재와 본질, 인식과 행동, 명혼과 그 형식, 자아와 세계, 개인과 사회사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²⁶⁾

26) 리영섭, 「새시대 시의 이미지」, 『문학과 예술』 80호, 1993, 18-19쪽.(밑줄은 인용자)

1990년대에 한국 문학의 주제가 탈이념화와 탈정치화, 욕망, 미시담론,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문화주의, 신세대 문학 등이었다는 점²⁷⁾과 비교하면 조선족 문단에서 내린 시대적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 문단은 가치와 세계관의 해체와 균열이 가져온 삶의 괴리를 미적 자율성의 계기, 탈주체화의 계기로 보는 반면 조선족 문단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족문학의 현대성이란 무엇인가가 구체화된다. 시비평을 중심으로 볼 때, 1990년대 초반에는 현대성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거나 수용 방향을 논하는 비평만이 아니라 실제 작가들의 작품에서 현대성을 분석하는 비평들이 다수 등장했다. 조선족 평단은 현대성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진단을 통해 조선족 시문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조선족 시인 박화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현대적 형식을 수용하되 민족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1990년대 전반기에 나타난 삶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성 담론의 주된 방향이었다.

우리식 현대시란 우리민족의 현대생활의 반영인 현대의식을 현대기법으로 우리민족의 현대미감에 맞게 표출하는 시-현대적이고 민족적인 시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중략) 현대파가 되려면 동방, 그것도 중국이라는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풍토에서 오늘의 현대파, 그리고 조선민족의 현대파로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길인데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누가 진정 나름대로의 이 길을 개척한다면 력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밀수군이나 허풍서니의 길이 아니라 착실한 탐구자의 길이다.

(중략)

현대시에서의 현대기법에는 외래적인 것이 도입되어도 그것이 민족정신의 고양, 시대정신의 고양에 이바지하는 민족시문학의 진흥을 가속화한

27) 1990년대에 한국 문학의 전반적인 주제는 탈이념화와 탈정치화, 욕망, 미시담론,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 내지 문화주의, 신세대 문학의 등장 등이었다. (최강민 외, 『좌담: 90년대 문학을 결산한다』, 작가와 비평 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5, 13쪽.) 조선족 문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문단은 가치와 세계관의 해체와 균열이 가져온 삶의 괴리를 미적 자율성의 계기, 탈주체화의 계기로 보는 반면 조선족 문단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면 만족인줄로 안다.²⁸⁾

위 글에서 박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현대파”는 “조선민족의 현대파”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식 현대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는 현대의식의 시적 표현, 둘째는 사회배경이나 문화배경, 민족의식이나 지구의식에서 종적계승과 횡적도입의 화합물로서의 시적 표현, 셋째는 창작 소재나 주제에 있어 개방적인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정신, 넷째는 반전통, 반공리, 반이성이라는 서방현대파를 지양하고 생활과 감정, 형식의 특징을 발효시키는 지성 추구, 다섯째는 민족의 진취의식과 사회의 진보의식을 고양하는 정신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시대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대시인의 기본 소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확고한 신념과 창작 실천도 강조한다.²⁹⁾ 박화의 우리식 현대시가 지향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현대시의 형식적 요소를 받아들여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민족의 현실이나 민족문화 등을 반영하여 문학이 시대적 변화에 선 민족의 삶을 견인해나가는 역할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선족문학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선족문학의 경우 문학과 문화정체성이 곧 조선족이라는 집단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되다는 점에서 문학이 사회, 도덕적 영역을 떠나 미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박화의 입장에서처럼 현대시는 지성을 통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자 여러 민족과 국가라는 집단의 정체성과 변별될 수 있는 특수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박화는 자신의 견해를 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해 최삼룡은 박화의 시를 평한 글에서 “넓은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집요한 노력, 우리 민족의 특색에 알맞은 새로운 형식과 풍격을 창조하기 위한 피터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하면서 “박화의 시의 새로운 탐구는 현대시의 자각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현대인의 지성을 침투시키려는 강렬한 창조적 욕념으로부터 출발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말한 바 있다.³⁰⁾ 요컨대 조선족 문인에게 민족

28) 박화, 「우리식현대시 관견」, 『장백산』 68기, 1993, 172쪽, 174쪽.

29) 위의 글, 173쪽.

문학의 창조란 과거나 전통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현대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임윤덕도 현대시의 원리란 서구에서 형성된 문예사조의 특성을 전제로 하되 “여러 나라들에서 자기 민족의 시전통을 계승하면서 현대의 관점과 현대의 언어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시로 표현하려는 지향에서 연구된 시학원리를 통틀어 말한다”³¹⁾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위 논의를 종합해보면 1990년대 조선족 평단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20세기 문예이론들을 새로운 비평 이론으로 수용하되 모더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수렴되지 않는 조선족 문학만의 새로운 방향성을 현대성으로 전유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추구한 현대성은 조선족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새로운 형식 안에 담아냄으로써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개방화, 다원화되어가는 사회 환경에 처한 조선족문학은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균열과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nation)이나 조선인이라는 민족집단(ethnic group)과 변별되는 고유한 자기정체성 획득을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천: 국제 교류와 민족정신의 형상화

경제체제의 변화와 함께 다가온 문화적 전환기 앞에 선 조선족 문단에서는 국제적 문학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조선족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자 『장백산』의 편집주간이기도 한 남영전은 1991년 7월 북경에서 열린 ‘세계민족문학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주 등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문학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조선민족문학 국제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한반도를 떠나 소수 이민족으로 살아가면서 민족문학의 생존과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판 교류만이 아니라 국제적 조직을 설립하여 교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작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

30) 최삼룡, 「주지시의 한 가능성 - 박화 시의 근작을 평함」, 『문학과 예술』 76호, 1993, 4쪽, 8쪽.

31) 임윤덕, 「현대시의 원리」, 『문학과 예술』 72호, 1994, 16쪽.

이다.³²⁾ 국내외 문단과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조선족 문단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였고, 실제로 조선족 작가들은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보고에서 김학천은 그동안 “연변문학은 이러한 시대의 맥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국내외 문단과의 교류를 가장하는 한편 외국에로의 진출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평가기도 했다.³³⁾ 국제적 문학 교류는 조선족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외부 세계의 문학과 문화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조선족문학이 세계적 감각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했다. 나아가 조선족문학이 한글문학의 새로운 주체로서 세계 각지의 한글 창작자들과 교류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제적 문학 교류에 대한 요구가 조선족 내부의 정체성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족 시인 김정호는 1990년대 초반 문단의 현실에 대해 “중국의 영향을 수용하려는 시도는 곧바로 중국문화에 휩쓸리는 결과를 낳아 점차 우리의 것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글 창작이 힘겹게 맥을 유지해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³⁴⁾ 이러한 진단은 개혁개방 이후 대두된 조선족 위기론과 관계되어 있다. 조선족 집거구의 인구가 감소하면 민족구역자치의 위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소수민족 인구가 30%이하로 내려가면 민족구역자치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었다. 조선족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연변이 자치주를 상실할 경우 한족으로 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³⁵⁾

문학지위의 탈락, 민족정신의 결여, 민족동화행정의 가속화, 민족문화의 위기 이러한 상황의 현실적인 존재는 우리 민족의 량심있는 엘리트들에게

32) 남영진, 「조선민족문학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 문제에 관하여」, 『장백산』 66기, 1992, 168-173쪽.

33) 김학천, 「21세기를 향한 우리 문학을 위하여 -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창립 40돐 기념대회보고」, 『문학과 예술』 99호, 1997, 36쪽.

34) 김정호, 「중국의 현실과 ‘조선족’문학」, 『아시아문화』 제7호, 1991, 294-295쪽.

35) 김재기, 「중국 조선족 농촌 집거구 해체위기와 ‘집중촌’ 건설」, 『통일문제연구』 17(2), 2005, 119쪽.

새로운 과업을 맡겨주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작가협회가 존재하여야 하고 우리들의 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는 바이다.(1996. 8. 15)³⁶⁾

문학과 민족문화 및 민족정신의 존립이 직접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 조선족 사회에서 나타났던 위기론은 문학자들에게 가치의 혼란과 동화로부터 민족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다고 당시의 조선족 문단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 감각이나 국제적 교류의 요청과 동반되는 문제는 조선족의 존립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의 결합 지점을 잘 보여주는 리상각의 논의에 따르면 조선족 문학이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자기의 주체를 내세우고 자기식 풍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술형식은 우리 민족의 기호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민족성이 짙은 풍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것에 대한 완전한 모방과 기계적 인식은 자기의 민족성을 배격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조선족의 문화정체성 유지 및 발전이라는 과제를 무엇보다 전면에서 내세워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국제적 문학 교류의 시도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적 문학 교류의 시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한국문학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탈국가적 차원에서 한글문학이라는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문학이라는 국제적 네트워크는 한국문학 내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산의 경험과 소수민족 혹은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매개로 연대하는 새로운 문학적 주체의 등장을 기대하게 하는 시도였다.

조선족문학이 현실적으로 택한 것은 민족정체성 확립의 방향 모색이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해 문학적 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남영전의 토템시이다. 남영전의 토템시집 『원융』은 1990년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혁개방 이후인 1986년부터 2003년까지 18년의 창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중국어 시집이다. 비록 중국어로 발간되긴 했으나 조선족 시인인

36) 김학천, 앞의 글, 37쪽.

37) 리상각, 앞의 글, 30쪽.

남영전의 민족문화에 대한 탐색과 그 결과를 반영한 시집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내 문예지에도 토템시의 창작 동기가 소개된 바 있는데, 남영전이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토템에 주목했던 이유는 그것이 모든 민족의 원형 정신이라는 보편성과 각 민족의 특수성을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토템정신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관계의 최고의 도덕경지임을 말해 준다. 토템숭배는 또 예술, 철학, 윤리, 종교 등 문화를 산생시킨 근원으로 한 개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 (중략) 토템정신의 회복은 현대의 민족이 선진 민족으로 부상하는 전제가 아닐 수 없고, 매 개인이 우수한 민족 성원이 될려면 토템정신을 떠나서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현실과 미래를 관심하는 문학예술가들은 토템정신의 선양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³⁸⁾

남영전이 직접 밝힌 것처럼 토템시는 시인 자신이 현대 서구 이론을 통해 토템에 관한 문화적, 철학적 이론과 중요성을 수용한 뒤 민족문화 정신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창작되었다.³⁹⁾ 이에 대해 한국 연구자인 이상갑은 남영전의 토템시가 조선족에 속하는 동시에 중화민족에게도 속하고 나아가 세계 민족에게도 속하는 세계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⁴⁰⁾ 결론적으로 남영전의 토템시는 조선족 평단이 추구했던 과제들 즉 세계적 문학 감각의 확보와 민족문화정체성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문학 작품을 통해 형상화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논의는 변화와 개혁의 시기였던 1990년대 중국조선족 비평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나 한중 수교 등 여러

38) 남영전, 「민족의 꿈과 토템정신의 회복」, 『시안』 제5권, 1999. 9, 69쪽.

39) 남영전, 「민족문화의 부리를 찾아서」, 『시안』 제4권, 1999. 6, 290-294쪽.

40) 이상갑, 「남영전 토템시를 보는 중국문단의 한 시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107쪽.

가지 사회적 변화는 조선족문학이 기존의 문예 이론이나 문학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존립의 방향과 정체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문학과 예술』, 『장백산』에 실린 비평들을 통해 이 시기 조선족 평단의 문제의식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주목해보았다.

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사회 문화적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조선족 비평에 나타난 쟁점들은 먼저 비평의 위기와 극복 방안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창작 방법을 추구했던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변화하는 현실과 그것을 반영한 작품들을 보면서 평단은 비평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식과 이론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사회주의 문예이론을 완전히 탈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평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론의 섭수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었다. 조선족문학의 이론 결핍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시의 중국 비평계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1993~1995년 무렵은 탈식민주의 비평이 중국 비평계의 화두가 되었던 시기이다. 1994년 중국 학술계에서는 “가는 곳마다 사이드 이야기, 오리엔탈리즘 이야기이고, 탈식민주의 문화 비평이 일종의 유행”일 정도였다고 한다.⁴¹⁾ 이와 같은 중국 비평계의 여파는 조선족 비평계에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탈식민비평이 민족문학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 즉 “망명의식, 소유권 및 상속권 박탈의 문제, 파생과 제휴의 문제, 정체성의 위기, 중심문학과 주변문학, 소속과 자리 뺏김의 문제, 그리고 지배문화의 불가시적인 억압과 임의적인 정체성 부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민족문학이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시각과 전략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⁴²⁾했었다는 점에서 이산의 경험을 지닌 중국조선족 사회에도 일련의 자극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새로운 비평 이론에 대한 갈망과 요구는 시문학에서는 현대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비평가들은 문예지를 통해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등 서구의 문예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이데올로기적 추세를 그대로 추종하기 보다는 조선족문학이 취해야 할 현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방

41) 이옥연, 「1990년대 중국의 탈식민주의 비평」, 『중국현대문학』 제18호, 2000, 338쪽.

42) 김성근,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 16-17쪽.

향성을 모색했다. 그러나 조선족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조선족문학은 곧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성 논의는 곧 조선족의 문화적 전통 및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모색으로 이어졌다.

세계 문학과와의 교류와 소통을 향한 움직임 역시 조선족 민족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물론 조선족 비평가들이 제시하는 민족문화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것을 지키자는 것만이 아니었기에 그리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들은 세계 문학과 공감할 수 있는 문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조선족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한 노력의 성공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남영전의 토템시이다. 대부분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뿌리에 대한 상징인 토템은 보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민족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남영전의 토템시는 조선족문단만이 아니라 중국문단에서도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요컨대 1990년대 조선족 비평은 조선족문학만이 아니라 조선족 사회의 위기론 앞에서 균열과 해체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비평가들은 세계 문학에 대한 감각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의 지식과 이론을 수용하는 한편 조선족의 문화정체성을 형상화하는 창작 방법론을 찾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선족 비평의 움직임은 중국이나 북한, 한국과 차별화되는 한글문학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시도로 끝난 국제적 한글문학 네트워크의 가능성은 ‘한글문학=한국문학’이라는 한국문학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학 주체의 도래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다. 아울러 시대적 위기 극복에 대한 치열한 비평가들의 목소리는 한글 창작과 자기정체성의 상관성을 첨예하게 겪고 있는 재외 동포 문학을 실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는 점도 덧붙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 옥, 「한중수교와 중국 조선족 문학」, 『비평문학』 제36호, 2010.
- 고신일, 「중국조선족문학과 연변문학(하)」, 『북한』, 1995.
- 김관웅, 김정은, 「개혁개방 이후 다문화시대 중국조선족문학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 『국어교육연구』 제26집, 2010.
- 김두섭, 류정균, 「연변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 1990년, 2000년 및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 『중소연구』 제36권 제4호, 2013.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여름호, 1992.
- 김정호, 「중국의 현실과 ‘조선족’문학」, 『아시아문화』 제7호, 1991.
- 김학천, 「21세기를 향한 우리 문학을 위하여 -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창립 40돐 기념대회보고」, 『문학과 예술』 99호, 1997.
- 남영진, 「조선민족문학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야 할 문제에 관하여」, 『장백산』 66기, 1992.
- _____, 「민족문화의 부리를 찾아서」, 『시안』 제4권, 1999.
- _____, 「민족의 꿈과 토탑정신의 회복」, 『시안』 제5권, 1999.
- 류연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문출판」, 『문학과 예술』 88호, 1995.
- 리상각, 「창작과 평론에 대한 단상」, 『문학과 예술』 89호, 1995.
- 리영섭, 「새시대 시의 이미지」, 『문학과 예술』 80호, 1993.
- 박 화, 「우리식현대시 관건」, 『장백산』 68기, 1993.
- 안병삼, 「『장백산』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 사회와 비판의식」, 『한민족문화』 제32호, 2008.
- 외교통상부, 『중국 개황』,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과, 2012.
- 이상갑, 「남영진 토론회를 보는 중국문단의 한 시각」,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 이옥연, 「1990년대 중국의 탈식민주의 비평」, 『중국현대문학』 제18호, 2000.
- 임범송, 「시장경제와 90년대」, 『문학과 예술』 88호, 1995.
- 임윤덕, 「현대시의 원리」, 『문학과 예술』 72호, 1994.
- 장은영,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도시 서정」, 『한중인문학연구』 제46집, 2015.
- 장춘즈, 「신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현상과 전망」, 『인문과학』 제53집, 2014.
- 전성호, 「중국조선족당대문학평론개관」, 『문학과 예술』 89호, 1995.
- 전성호, 『중국조선족 문학 예술사 연구』, 이회출판사, 1997.

- 정덕준, 이상갑, 「재중 조선족 문학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vol.13, 2003.
- 조성일, 「중국조선족 당대문학평론에 대한 단상」, 『문학과 예술』 89호, 1995.
- 최강민 외, 「좌담: 90년대 문학을 결산한다」, 작가와 비평 편,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5.
- 최병우,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2007.
- 최삼룡, 「주지시의 한 가능성 - 박화 시의 근작을 평함」, 『문학과 예술』 76호, 1993.
- _____, 「중국조선족문학과 한국문학의 만남」, 『문학과 예술』 80호, 1993.

❖ ABSTRACT

The Issue of the Korean-Chinese Poetic Criticism in 1990's
- Focusing on the Magazine *Literature and Art(Munhakwayesul)*,
Zhangbaikshan

Jang, Eun-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issue of criticism in Korean Chinese literature in 1990's. This is transitional time why China introduced a market economy system. It had an important effect on Korean Chinese society not the cultural climate but also literature. Besides, Diplomat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gave an impulsion to changing literature. So this study tried to take note of directionality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through the Korean Chinese magazine *Literature and Art(Munhakwayesul)* and *Zhangbaikshan*.

First issue of Korean Chinese literature in early 1990's is crisis and restoration of criticism genre. At that time criticism faced with what is modernity. Some critics insisted that criticism should to improve. So it was necessary to accept foreign theory. Then they were concerned postmodernism and deideology tendency. What was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would find their culture identity.

So few critics tried to communicated with world literature. Especially they emphasized communication with Korean writer who lives in other country. Ultimately they thought that Korean Chines literature must get literal universality and ethnic speciality. For example poet Nam-YoungJeon's totem poetry is representative work.

The issues of Korean Chines criticism in 1990's are not directivity of literature but also directivity of culture identity. Korean Chines literature had departed from Socialistic realism little by little and had getting diversity. Above all things criticism aimed for international sense and ethnic culture identity.

Key Words

Korean Chines literature, criticism in 1990's, *Literature and Art(Munhakwayesul)*, *Zhangbaikshan*, ethnic culture identity

논문접수일: 2015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9월 07일

게재확정일: 2015년 09월 08일